

책속인물에게 보내는

한글손편지

제6회

하고 말이야. 그래도 계속해서

학교에 따라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겠지?

개돌이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은 고쳐 재밌을 것 같아.

왜냐하면 겨울에는 쌀매를 탈 만한 길도 있고, 고드름도 많이 있잖아.

여름에는 책 내용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재밌는 일이 생길 만한 길일거야.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은 지금이 평범한 길이야.

특별한 놀이거리는 없지만 그래도 친구랑 수다떨면서 가다보면 즐거운 길이 돼.

나는 우리 초코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보기에는 너랑 초코랑 무척 잘 놀 것 같거든.

학교가는 길이 평범하지만, 친구랑 함께 가면 좋은 것처럼

너와 초코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거야.

우리 초코도 너처럼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든.

그래서 늘 미안하고 마음이 쓰여.

개돌아. 그래서 말인데~

혹시라도 준우를 따라서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면, 우리 집에 놀러올래?

우리 초코는 엄청 순둥순둥 순한 성격에 엄청 똑똑하지만, 때로는 멍청이가 아닌가 싶은 정도로 멍충미가 넘쳐.

사실은 너무 똑똑해서 멍청한 척 하는 거지만^^

네가 우리 집에 놀러오면 초코가 우리 집도 구석구석 소개해주고

가식도 나눠줄거야.

그럼 개돌이 너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집에 놀러올 날은

기다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 잠에서 편지를 마칠게.

그럼 잘 지내고 있어. 안녕~

2020.7.26

From. 가을